

# 전주만의 주거복지 혁신사례 공유

### 김승수 시장, 'AURI 마을재생포럼' 참석해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방안 논의

사람을 중시하는 전주시 주거지재생 정책이 지역재생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전국을 대표하는 주거복지 혁신사례로 공유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소현)에서 열린 'AURI 마을재생포럼'에 참석해 지역재생, 도시계획,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열린 'AURI 마을재생포럼'에서 전주시의 주거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건축·도시설계 분야 국제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 연구단장과 조준배 전주시지역재생총괄계획가의 발제와 박소현 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승수 시장은 남철관 나눔과미래국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과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해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주거지 쇠퇴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거지재생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주거복지 혁신사례들을 소개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신도시 개발을 언급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을 우려해 도시외곽의 팽창을 억제하고 압축적인 도시관리로 전환한 점을 강조했다. 여의지구 도시개발 취소, 역세권, 가린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 요청 등을 예로 들면서는 무분별한 주택지 개발보다는 구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나섰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람 중심 주거복지정책도 소개했다. 부동산 임대료와 민간임대주택(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응해 임차인들을 보호한 사례와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예술마을, 새뜰마

을 등에 공급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도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층수, 건축용도를 규제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도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 등 투기거래를 적발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노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해피하우스 센터 등을 가동해 주거복지 강화한 점과 지역재생총괄계획가를 통해 노후화된 집의 보수부터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의 생활 영역 정비에 이르기까지 주거지 재생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도 소개했다.

김승수 시장은 "개발이 아닌 재생, 보존, 관리 측면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도심 공간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골목길 정비, 빈집 정비 등 기존 재개발과 차별되는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후백제 복원·활용방안 모색

### 후백제 왕도 전주 바로알리기 학술세미나·시민토론회 개최

후백제 문화유산 발굴조사 성과 공유하고 문화유산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후백제 복원작업을 강화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주시와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는 지난 11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후백제 왕도 전주 바로알리기 학술세미나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후백제는 어떤 나라였는가?'를 주제로 한 송화섭 중앙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전상학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박장근 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김경미 전주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후백제 문화유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동향과 유사사례 분석부터 조사·연구·보존·정비·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민·관·학의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후백제 역사문화단체나 모임, 후백제 시민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복원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 "동고산성 유적지를 복원해 후백제 산성으로서의 진정성과 역사성을 되찾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백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답사, 체험, 공모전, 상품 개발, 홍보관 건립 등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전주대학교 교수는 "후백제 역사의 흔적은 노송동을 중심으로 한옥마을과 진북동 일원, 아

로 중후수를 연결하는 유아동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민 정주공간 운데 후백제 복원작업을 강화해 역사 정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식도 있지만 전주시가 역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상학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후백제 문화유산 발굴조사 성과를 주제로 3시간 진행됐던 전북권 내 유적의 발굴조사 내용을 정리했다. 박장근 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후백제 고도 전주, 왕궁 터와 추정 왕릉'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무릉이 왕릉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조상진 전북일보 (전)논설위원을 좌장으로 한 시민토론회가 계속됐다. 토론회로는 강희경 후백제선양회장, 박일천 국립전주박물관 여성문화답사회장, 여춘희 한국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 한봉수 전북과 미래포럼(연구·보존·정비·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민·관·학의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후백제 역사문화단체나 모임, 후백제 시민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등을 통해 복원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 "동고산성 유적지를 복원해 후백제 산성으로서의 진정성과 역사성을 되찾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백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답사, 체험, 공모전, 상품 개발, 홍보관 건립 등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전주대학교 교수는 "후백제 역사의 흔적은 노송동을 중심으로 한옥마을과 진북동 일원, 아로 중후수를 연결하는 유아동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지역민 정주공간 운데 후백제 복원작업을 강화해 역사 정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식도 있지만 전주시가 역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전주 혁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내 실개천 가동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혁신도시에 있는 실개천이 가동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혁신도시 보행자 전용도로 내에 조성된 실개천 860m 구간의 정비를 완료하고, 1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실개천을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실개천은 염순근린공원부터 중동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다. 덕진구는 실개천 가동을 위해 급수밸브 및 가압펌프의 노후 부속품을 교체했다. 또 각 계절을 상징하는 조경수를 구간별로 테마를 달리해 식재하고 풀을 뽑고, 나무의 전지작업도 실시했다. 구는 향후 실개천이 쾌적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와 소독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실개천이 흐르는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미세먼지 저감수도 조성하고 있다. 실개천과 함께 쉼터 조성되면 보다 쾌적한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 가져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공정관광 중심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 11일 대성동 소재 왕의지밀에서 관광 분야 전문가와 공정여행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관광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사업체,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의미한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장인식 우송대학교 교수, 심우석 전주대학교 교수, 이종원 여행작가,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 등이 참여해 전주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인식 교수는 "단순한 모방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전주만의 공정관광 모델이 완성돼야 한다"며 "방문객과 지역주민 간의 희망 조건을 충족시키는 관광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심기 로드맵부터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심우석 교수는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핵심 지표들을 활용해 관광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종원 작가는 타 지역의 다양한 공정관광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각 사례의 성공요인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설명했으며, 나효우 대표는 공정관광과 지역의 이익 창출을 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정관광 전략들을 소개했다. /김윤상 기자

## 학교 밖 청소년 위한 2차 꿈드림 딜리버리 사업 실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차 '꿈드림 딜리버리' 사업을 진행했다.

'꿈드림 딜리버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꿈드림은 '배달해 드림'이라는 슬로건의 이 사업을 통해 밀키트와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사 대용품 115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했

다.

정혜선 센터장은 "작년부터 시작한 꿈드림 딜리버리 사업이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상담원들이 직접 찾아가 안부를 묻고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